

산자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4,095억원 지원

- 참여정부 출범시 1,193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시켜
4,000억원대로 -

산업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4,0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05년 3,242억원 대비 2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244억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용자 1,213억원, 그리고 발전차액 263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 기술개발 부문은 상업용 연료전지, 태양전지소재 양산기술개발,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작년대비 32.3%증액된 1,2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490억원, 보급보조사업 28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30억원 등 작년대비 48.9%증액된 1,3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급용자 부문에는 작년대비 3.7% 증액된 1,213억원이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대비 26.4% 증액된 263억원이 지원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 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특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작년 2,886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작년 355억원보다 대폭 증액되었다.

■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에너

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03.12월)를 수립한바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시 1,193억원이었던 예산규모를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3년간 연평균 52%)시켜 '06년에는 4,09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시화호 조력발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승인

- Non-Annex I 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기업
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CDM 사업 사례 -

■ 한국수자원 공사가 참여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사업(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방조제)이 1월 25일, 정부(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승인받았다.

* i) 울산화학 HFC 열분해 사업 승인('04.7월,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모 : 연간 1.4백만CO₂), ii) 로디아 에너지 코리아社 N₂O 배출 감축사업 승인('05.9월 :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모 9.15백만CO₂), iii) 강원풍력발전단지 사업 승인('05.12월 :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모 0.15백만CO₂) iv) 영덕풍력발전단지 사업 승인('06.1월 :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모 0.06백만CO₂)

- 동 사업은 254MW 규모의 조력발전사업으로서 연간 예상 발전량은 552,700MWh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04년 : 367,581GWh)의 0.15%에 해당)이며, 연간 310,593tCO₂ 정도('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 tCO₂의 0.05%에 해당)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수적 환경효과 : 연간 589톤의 SOX, 446톤의 NOX 및 31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 아울러 승인된 5건의 CDM 사업을 통하여 연간 11.07백만톤CO₂('03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 톤의 1.90%에 해당)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DM 사업 참여자가 국가 승인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CDM 사업 등록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데, 시화호 조력발전단지 사업이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등록될 예정이다,

■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05.2월)의 결정에 의하여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은 우리나라(Non-Annex I국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본 사업의 승인을 계기로 이러한 형태의 CDM 사업이 국내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전, 레바논 870MW급 발전소 운영사업권 수주

- 총 계약금액 8,550만불/ 연간 1,700만불 운영수익 확보 -

- 사업명 : 레바논 Deir-Amar 및 Zahrani 복합화력 O&M 사업
- 설비용량 : 870MW (동일기종 435MW 복합화력 2기)
- 발주자 : 레바논 전력청 (Electricite du Liban)
- 사업기간 : 5년 (1년씩 2회 연장가능)

- 계약금액 : 85,565 천불 (연간 약 1,700만불)

한국전력(사장 한준호)은 레바논 정부가 발주한 디아르아마르(Deir-Amar) 및 자라니(Zahrani) 발전소(시설용량 각 435MW)의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 총 계약금액은 약 8,550만불로, 한전은 향후 5년간 두개의 발전소 운영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는 국내기업으로 레바논에 진출한 첫 번째 사례이다.

- 위 두 발전소는 수도인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각각 남북 65km, 8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레바논 발전량의 47%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마감한 입찰에서 한전 및 Ansaldo(이태리), NTPC(인도) 등 7개사가 응찰한 결과 한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이후 계약이행능력 심사 및 가격협상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레바논 각료회의는 한전과의 최종 계약체결을 승인하였다.

- 한전은 올해 1월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월경 실질적인 발전소 인수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전력은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레바논 발전분야에 진출하여 중동지역 해외발전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향후 예정된 레바논 발전분야 민영화 추진시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10기 신입사원 입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종재) 제10기 신입사원 123명의 입사식이 '1월 16일 오전 11시에 원자력교육원(원장 이용수)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입사식에는 김태선 경영관리본부장 및 조태



만 본부노조위원장, 고리원자력본부장 등 내빈과 신입사원가족(82가족 171명)이 참석하여 한수원의 가족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의 입사를 축하하였다.

김태선 경영관리본부장이 대신 읽은 환영사에서 이중재 사장님은 먼저 입사식을 빛내주기 위하여 먼 길은 오신 신입사원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 뒤, 향후 우리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신입사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자기개발에 힘써 철저한 프로근성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기를” 당부하였다.

원자력교육원은 이번 입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방문한 가족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부산역 및 부산고속터미널까지 대형버스를 왕복 운행하고, 고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고리본부 전시관 및 발전소 주제어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원거리에서 전일 방문한 가족들에게는 교육생 숙소 40여실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번에 입사한 123명의 신입사원은 원자력 97명, 토건 16명, 통신 10명으로 원자력교육원에서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원자력직은 4월 4일경, 그리고 토건직 및 통신직은 3월 3일경 사업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환경보전의 침범, 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상섭)은 1월 16일 보령화력본부가 위치한 충남 보령시내에 주변지역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표시하는 초대형 LED 환경정보 표지 전광판을 설치했다.

환경정보 표지 전광판은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되어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관리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회사홍보, 지역문화 홍보 및 시정홍보 등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16일 보령시 및 보령화력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점등식은 중부발전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발전소 주변지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토착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0월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관하는 ‘2005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친화적 태도를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서발전, 발전소 사고 제로화를 위한 혁신안 확정

- **㈜ 혁신경영체제(TORSIM) 혁신안 사업소 적용 들어가**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가 발전소 사고 제로화를 위한 혁신안을 확정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간다

동서발전은 1월 26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사 설비안전 혁신경영체제 TORSIM(Total Reliability & Safety Innovation Management)’ 태스크포스 해단식에서 발전소 운전, 정비, 제도 및 안전분야 전반에 대해 수립된 중장기전략을 사업소 전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해 10월 13일 인명과 설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동서발전 직원 78, 사외자문 10명 등 분야별 전

문가 88명으로 구성된 사장 직속의 태스크포스가 발족된지 3개월만에 이뤄진 성과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월 무주에서의 Work-out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사업소 특별 기술점검을 실시했고 민간 회사 벤치마킹을 통해 안전관리 등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태스크포스는 핵심 혁신활동(KAI: Key Action Item) 23개 항목을 발굴해 혁신방안 수립 토대를 확보했고, 12월 1일 중간발표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全) 직원과 공유했다.

또, 도출된 혁신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 및 석유화학 분야 8개 민간회사에 대한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강연회, 전사 아이디어 및 포어 공모, 외부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확정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TORSIM 체제는 발전소 운영 전반에 걸쳐 스며든 관행과 타성을 뿌리 뽑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경영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태스크포스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은 동서발전의 발전설비 및 안전 분야 혁신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고 발전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설비 신뢰도 제고와 안전사고 제로화가 최우선적 과제”라며 “지속적으로 기존의 발전설비 운영 시스템을 뛰어넘는 정량적,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서를 단기, 중기, 장기의 세 단계로 구분 작성해 발전소 현장에 직접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주) “발전사업 리더, 날개를 날다”

- 발전설비 효율 극대화 무고장 운전 · 품질강화 -

젊은이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종신)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부발전의 청사진은 경영혁신과 중소기업지원사업, 신 · 재

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에서 타사와 차별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 발전소의 무고장 운전을 대폭 강화, 발전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21세기 발전산업을 리더 할 수 있는 경쟁력에 날개를 달겠다는 시나리오이다. 서부발전은 이달 중 무고장 운전 추진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설비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 등 4개 분야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이템을 적극 발굴한다.

4월에는 장 · 단기 발전설비의 예방정비를 강화하며 발전6사의 고장사례 원인을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한다. 또 사외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OH호기를 우선으로 취약설비의 정밀 진단을 시행한다.

설비관리와 현장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1~6호기의 보일러 통풍설비 제거장치를 개선하는 등 13건의 설비보강을 시행하고 실시간 운전시스템 등 4건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한다. 또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설비관리모델 구축을 통해 예비진단과 혁신과제를 수행하며 다중잠금장치 등 설비관리 신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의 핵심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기터빈 재질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술인력을 전력연구원에 파견,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업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무메뉴얼을 제정해 오는 4월에 실시한다. 이 실무메뉴얼은 수요급증과 계통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대응책과 사업소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유효성 평가와 개선이다.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서부발전은 5월에 보험사 방재전문가를 활용, 발전소의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난연성 벨트르 교체하는 등 태안 석탄 취급설비의 시설을 보강한다.

또 삼량진 댐 붕괴시 비상대처 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전사업소 무재해 달성을 위해 태안 15배, 평택 10배, 서인천 5배, 삼량진 15배로 목표를 높였다.

기후변화협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부발전은 환경보전설비를 적기에 설치한다. 이 사업은 태안과 평택화력 질소산화물(NOx)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평택에 삼산화황(SO₃) 저감

설비를 설치, 정부 정책과 연계해 온실가스 처리 기술 등을 개발해 배출구너거래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오는 7월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기술 3건을 적용한다. 또, 전문가의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손실요소를 발굴, 원가절감을 오는 12월에 추진한다. 특히 연료와 성상별 원가분석 등 탄종별 운영비용 평가시스템개발을 오는 6월에 서인천 성능개선 공사의 종합준공이 오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1~4호기용 연속식 석탄하역기 최초하역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 삼천포화력본부는 1월 26일 1~4호기용으로 설치중인 연속식 석탄하역기의 최초하역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삼천포화력 1~4호기용 연속식 석탄하역기 설치에 노후된 간헐식 석탄하역기를 낙탄 및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설비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최초하역시험은 연속식 석탄하역기의 종합 연동시험을 마치고, 성능시험을 실시하기 전 단계의 부하시험(Load Test)이다.

이 날 최초하역 후 조병기 삼천포화력본부장은 '02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04년 6월 계약(두산중공업), '05년 12월 하역기 제작 및 설치를 계획 공정대로 진행하고 급일 최초하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원 및 현장작업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후 최종 성능시험 등 '06년 3월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를 당부하였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성공적인 연속식 석탄하역기 설치로 환경친화적 발전소 운영은 물론 하역 효율향상으로 안정적 설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설날 만들기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상갑) 한마음봉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6일을 릴레이 봉사주간으로 정하여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7개 사업소에서 3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 3천여만원의 이웃사랑성금(직원성금에 회사기부금 1:1 매칭 그랜트)으로 22개의 사회복지시설과 500여세대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대규모 릴레이 봉사활동이다.

특히 김상갑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한 본사봉사단은 한국복지재단과 공동으로 강서구 소재 가양7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400여세대의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떡국을 끓여 대접하고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하고 청소 및 생필품도 지원하였다.

전국 7개사업소에서도 주변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다양한 후원활동을 벌였는데, 하동화력은 50여명이 참여, 하동노인요양원 등 시설 5곳에서 청소 및 위문잔치를 하고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신안천복합화력 봉사단원 40여명은 인근 사회복지시설 2곳에 청소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인 50여세대에 쌀과 김치를 후원하였다.

영남화력은 50여명이 참여, 장애인 요양시설인 동향원 등 2개의 시설을 찾아가 위문잔치를 벌인 한편, 부산복합화력은 마리아구호소 등 5개의 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급식봉사를 펼쳤다.

남제주화력봉사단원 30여명은 남제주요양원에서 청소 및 난방유를 지원하였으며, 영월화력은 지체장애 시설인 노아의 집 등 2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생필품 지원 및 시설주변을 청소

하였다.

청평양수는 무의탁노인이 거주하는 주변 사회복지시설 4곳에서 겨울 난방용 화목을 정리하고 청소 및 목욕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번 전사 릴레이봉사활동에 참여한 본사봉사단원 중 한명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는것에 감사하며 봉사를 하면서 더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자녀동반 가족봉사, 연인봉사 등 가까운 사람끼리 봉사활동을 하면 더욱 더 뜻깊은 시간이 될거 같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코파워 PSM (공정안전관리제도) 정기등급 평가 최고 등급 획득

포스코파워(사장 이승우)는 지난 2005년 10월 20일~21일 이틀동안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부터 실시된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 공정안전관리제도) 정기등급평가 결과, 기존의 'S'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P' 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42조 2에 의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등급평가로, 회사는이번 평가결과로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면제를 받게 되었다.

“P” 등급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않은 결과로, 이는 회사가 사내 안전관리시스템 및 각종 안전 절차를 구축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효과 '톡톡'

- 1년간 '인큐베이팅' 과정 실시, 이직률 '제로' 수준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자체 개발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들의 적응력을 높여 전직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중공업은 작년 초에 채용한 100여 명의 신입사원 중 다 큰 회사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회사를 떠난 사람이 1년 동안 단 1명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대기업체 신입사원들의 입사 1년내 전직률이 평균 12%인 것과 비교하면 회사로 봤을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운용해온 교육프로그램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이 교육프로그램의 이름은 '인큐베이팅(Incubating) 과정' 으로, 인큐베이터 안의 신생아에게 영양분을 쥐 자생력을 갖게 하듯이 학창시절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에게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육성하는 과정이다.

두산중공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다른 대기업처럼 1개월간의 입문과정을 거쳐 팀에 가배치되는데, 가배치 후에는 3개월간의 기초 직무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두루 섭렵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자리잡기 위해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 9개월간의 잡 새도잉(Job Shadowing)을 수행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사원은 선배사원과 1:1로 연결돼 선배사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는 것은 물론 결혼이나 내집마련, 취미생활 등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친절한 조언을 받게 된다. 특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등으로 해외 배낭여행을 하게 되며, 해외 전시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중동 발전담수플랜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2주간 현장 체험 기회도 갖는다.

원자력 분야에서 1년간 인큐베이팅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국제학술대회에 4명의 동기생들과 함께 참가했던 김세훈 사원(원자로설계팀)은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를 직접 체험한 것은 물론 국제 원자력의 정책방향과 기술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인사기획 김명우 상무는 “두산중공업이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2G(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전략을 추구하는 만큼 우수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효성중공업, 북한 정춘흑연광산에 전력설비 최초 공급

대한광업진흥공사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춘 흑연광산 개발사업에 전력설비 공급자로 효성중공업이 참여하여 110kV GIS, 초고압 변압기, 수배전반 등 전력설비 일체를 공급하였다. 국내 최초로 북한에 공급된 우리 회사의 변전설비는 지난해 12월 중순 현지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19일 수전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우리 회사는 향후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대북자원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시 필수적인 변전소 건설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김영남)는 그동안 시행해 온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단순 우대지원제도에서 자금? 판로지원 확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부문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우리공사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한 3,030억원을 중소기업 건설공사에 2,340억원, 물품구매에 550억원, 기술개발 등 용역에 140억원을 각각 발주?지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공사는 지난 1월 23일, 2004년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무선통신 열배관 감시시스템을 향후 3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협약을 기술개발사인 부영산전주식회사(대표이사 엄주엽)와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우리공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비절감을, 기술개발사인 부영산전(주)는 장기판로를 확보하는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R&D 예산의 일정액을 배정,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생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며, 개발된 기술은 타 지역난방사업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집단에너지부문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